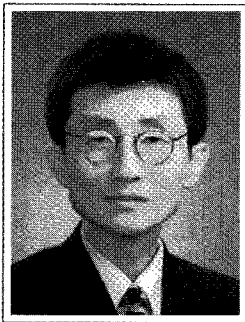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역할극의 도입

— 원자력 관련 갈등 구조 이해 및 해결의 심리학적 접근 —

최 광 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서 언

원자력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중 이해 혹은 대중 수용은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는 각종 집단 및 조직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중의 정서적인 반응이 연관된다. 대중의 정서적 반응은 과학 기술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과 예측 불가능성을 지니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원자력 종사자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종래의 기술자들, 원전 규제자 및 운영자들은 원자력 안전성과 규제 문제를 과학 기술의 문제로 인식하여 왔다. 즉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공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왔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라든가 그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더 이상 원자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는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반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수용하건 안하건간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원자력 규제자들도 근래에는 원자력의 안전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공동의 위기감을 느끼고 대중의 신뢰 획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로 해결의 실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홍보를 잘해야 한다거나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새롭게 시도해 볼 다른 방법론은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적 안전성, 즉 공학자들에 계산된 기술적인 안전성이 당연히 원자력 안전성이라고 가정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제 과학 기술자들이 기술적인 안전성만으로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원자력 같은 민감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는 대중의 정서가 연관되므로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심리극(psychodrama) 분야의 사회극(socio



drama) 혹은 역할극(role playing)을 사용하여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 주민 그리고 NGO들이 서로 다면적인 입장 바꾸기를 하여봄으로써 실제적인 안전성과 체감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역할극은 서로 상대의 정서나 입장을 이해하여 규제자는 규제 직무 의식을 사업자는 역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은 규제자와 사업자의 입장과 그들의 실제적인 업무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체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이를 실제 실험적인 역할극의 기획 시행을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역할극의 근본이 되는 심리극 혹은 사회극의 등장 배경과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이해와 갈등 구조를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후, 역할극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오류 등을 수정하여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원자력안전원)에서는 이를 위하여 8월의 「원자력안전점검의 날」에 기관 내에서 KINS 직원들만으로 역할극을 공연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11 월에는 사업자, 지역 주민, NGO, 언론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역할

극을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역할극이 가능성이 보여지면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한편 원전 사업소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소와 지역 주민들간의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를 다른 원자력 현안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안전성과 인지 안전성

본고에서는 인지 안전성(perceived safety) 혹은 체감 안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규제의 목적이 어떤 사회적 목표(societal goal) 달성이며 사회적 목표로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설정할 때 그 안전성이란 대중들이 인지한 안전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인지 리스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대중이 어느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수용한다면 먼저 안전성에 대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학적으로 계산되고 원자력 기술자들이 동의하는 안전성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는 안전성 수준이 낮으면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하는 안전성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 인지 안전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규제 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 시설이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중들을 교육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노심용융 확률이나 사망률이니 하는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 안전 인지 요인(Safety Perception Factor : SPF)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며 이를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여 보기로 한다.

$$S(\text{per}) = S(\text{real}) * \text{SPF}(\text{safety perception factor})$$

where S(per) : perceived safety level

S(real) : real safety level(calculated safety)

$$0 < \text{SPF}$$

그러므로 S(per)을 올리려면 S(real)을 올리든가 SPF를 향상시키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SPF가 1보다 높으면 S(real)이 낮더라도 S(per)이 높으므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설계에 있

어서 큰 경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SPF가 높다고 하여 공학자들이 실제 안전성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데는 윤리적인 문제가 개재될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홍보 강화나 교육은 이 SPF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회의 SPF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연구해 볼 과제라고 하겠다. SPF는 그 사회의 여러 변수들, 즉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사회 문화적 및 기타 요인들의 함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PF = f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 , 기타 국민들의 정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기관의 노력**

근래에 이르러 규제 기관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면서 public confidence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규제 기관은 대중과 접촉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으며 대중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반원전 단체들의 활동도 주로 원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이루어졌다.

원자력 규제 업무에 대해 일반 대중이 평소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출하지 않았고 규제 기관에 대중과의 의사 소통을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국민들이 원자력 정보에 쉽게 접촉하고 NGO의 활동이 증대하며 언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정보와 불안 심리가 신속하게 확산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 발생 혹은 운전 정지만 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이는 규제 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며, 한편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원자력산업이 침체될 경우 규제 기관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론도 부인할 수 없다.

근래에 '규제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2000년 OECD/NEA의 CNRA는 「Investing in trust」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CNRA 산하에 public confidence에 대한 작업 그룹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Ottawa에서 「원자력 규제자에 대한 public confidence 구축, 측정 및 향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 기관이 대중들과 지나치게 많이 접촉하여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경우 이는 원자력의 이용 진흥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 기관과 대중과의 접촉은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제 기관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접촉을 하되 그것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대중 수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원자력 안전원의 역할극의 시도는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 실제 안전성과 체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는 규제 전문 기관인 원자력안전원의 설립 목적과도 잘 부합한다.

역할극이란 ?

1. 심리극의 기원

심리극(psychodrama)은 1920년 자콥 레비 모레노(Jacob Levy



심리극 창시자
Jacob Levy Moreno

Moreno)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정신 병원에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심리극은 자신의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자발적인 행동으로 문제 상황을 표현하는 자발성·즉흥성·창조성이 핵심을 이루는 즉흥극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된 주인공이 관객 앞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고민·갈등·꿈 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연기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단 프로그램이다.

심리극은 자발적인 행동과 감정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충동과 그에 관련된 환상·기억·투사 등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생활, 좌절된 상황, 자기 실현의 소망 등의 모든 문제들을 연기를 통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자기 활동을 회복하며 행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라고 되어있다.

2. 심리극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로는 자신을 드러낼 주인공(protagonist)이 있는데 이는 심리극 연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조 자아(auxiliary ego)는 주인공과 더불어 극의 진행을 도와주는 인물이며 연출자(director)는 심리극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관객(audience)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는 과정에 일부나마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소와 무대, 및 간단한 무대 소품들이 있다.

3. 심리극의 효과

심리극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무의식 속의 자기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갖게 되며, 보조 자아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대인 관계 양식이 그대로 투사되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역할 연기나 역할 전환(role reversal)을 통하여 현재 행동을 보완해 줄 대안적 행동을 익힐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심리극은 애초에 병원에서 하던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의 범주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직장이나 조직 속에서 이해 관계가 다른 집단

간의 갈등 조정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사회극이라고도 하고 역할 바꾸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역할극이라고도 한다.

역할극(Role Playing)은 인간의 집단적인 역할에 비증을 두는 사회극의 한 종류로, 참가자들이 동의를 한 사회적 상황을 자발적으로 연기하는 집단 행위 방법이다.

이 Role Playing은 참여자들간 역할 변화를 통하여 사고와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행위'를 통해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호사들이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연극을 통하여 해봄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노사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되기도 한다.

이 심리극은 실제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연기한다는 역동성 때문에 참여자들의 몰입도가 높고 다른 입장을 자신이 연기하여 숨어 있던 갈등을 끄집어내어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식과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

으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이해와 갈등 구조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단체들은 대단히 복잡한 이해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사업자

우선 원자력 사업자는 원전의 설계·건설 및 운전을 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며 전력 시장에서 다른 발전소들과 경쟁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 추구할 성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를 규제 기관이 규제 활동으로 견제하고 있는데, 전력 사업자가 공기업일 경우 자신들이 싼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싼 전력 생산이라는 공익과 국민을 위한 원자력 안전성이라는 공익의 추구 사이에 상충이 일어난다.

이들은 원전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대면하면서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어려운 입장에 있다.

2. 규제 기관

규제 기관은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하여 원전 건설과 운영에 개입하여 규제 활동을 하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자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이 침체되면 원자력 규제 기관도 축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조직의 속성상 심정적으로 일부 원자력 진흥과 이해 관계를 함께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규제 비용 형태로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규제 전문 기관의 운영비를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적절한 제도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이 규제 기관에 대한 불신의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3.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 원전이 건설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집단이다. 이들은 원전 건설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으나 이것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역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타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전 운전 집단, 즉 원전 직원들과도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별도로 사택 단지를 이루어 섬처럼 떠있는 그들에 대해 이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원전에 취업을 한 사람 및 주변의 식당 등 영업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들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으나 이들 중에도 종전에 자신들이 하던 어업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형 산업 시설인 원전이 들어선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며 이미 건설된 원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원전 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불안감과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규제자들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03년 갤럽을 통한 조사 결과 이들은 원전 사고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규제 기관보다 NGO 들을 더욱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4.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지역 주민보다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이해 관계가 적으나 사고시 피해의 광역성에 대해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들어 알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전이라는 혐오 시설이 자신들로부터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의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원전을 적극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5. 언론 기관

언론 기관은 원자력 사업자와 정부 규제 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도 다른 언론사와 취재 및 보도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선정적인 보도를 할 가능성이 내포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나 사고가 났다거나 주민들의 반대 데모 등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언론에 보도되는 원자력은 거의 문제점이 있는 원전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원전은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그들은 사업자와 규제 기관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취득하여 보도를 하지만 언론사들이 필요로 할 때에 이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조직 내에서 사실 확인, 결재 라인을 밟는 등 제약 요인이 있으므로 마감 시간에 경쟁적으로 쫓기는 기자들은 환경 단체들의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그들은 추측 보도나 때로는 본의가 아니겠지만 과장 보도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은 때로 불만스러워 하기도 한다.

6. 연구 기관

연구 기관은 원전 사업자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원자력 시설이 늘어나야 연구 과제도 증가하므로 기본적으로 원전의 이용 진흥에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교육받은 집단으로서 높은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며 대개 지식인들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정서와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학문적인 사항이나 지식의 진화에만 관심을 갖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원자력 정서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이다.

7. 대학교

대학교는 대학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시켜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원자력의 이용 진흥을 바라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의 정서에 대해서는 일부 심정적으로 동조하지만 대중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지속적인 원자력 진흥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들은 규제 기관측의 과제를 수탁하며 각종 위원회 등 안전 관련 정책 결정의 자문에도 여러 형태로 참여하는 동시에 원전 사업자의 재원으로도 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8. NGO

NGO는 사회에서 정부의 규제 기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감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이들 역시 다른 NGO들과 때로는 협조 관계 때로는 경합 관계에 있는데 선명성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법적으로 원전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갈등 구조의 이해와 해결

일반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 상황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Pinkley 1990), 첫째, 관계 대 과업 차원, 둘째, 감정 대 인지 차원, 셋째, 승패 대 타협 차원이다.

전문적인 중재자들은 갈등을 과업상의 문제, 인지상의 문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로 지각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은 관계상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 승패로 해결될 문제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과 관련된 갈등은 먼저 지금까지 원자력 종사자나 정부 당국은

이를 금전이나 소유권 문제 보상 문제 등의 비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인지하고 보상해 주면 될 게 아니냐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보상을 더 타내기 위해서라거나 주민들끼리의 보상의 차등성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과업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반면 주민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두 번째 당국이나 원전 사업자가 이 갈등을 원자력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거나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을 해야 한다는 사고나 신념 혹은 사실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조 설득하려고 하는 반면(원전 수거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러한 시도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기 지역에 원전을 지은 것에 대한 분노, 그러한 현상을 자신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정부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 속았다, 배반 당했다, 우리만 피해를 본다 등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당국은 이 갈등을 보상을 통한(이에는 다른 대형 건설 사업 끼워주기 등도 포함된다) 타협이나 상호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양보하느냐 상대가 양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한

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로 갈등 인지상의 오류들이 지적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양립성의 오류(Thompson & Hastie 1990)이다.

이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측면을 상대방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인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을 양보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둘째는 투명성 과장의 오류이다.

이는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상대방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컨대 자신이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며 갈등 악화 소지가 크다(Vorauer & Claude, 1998)

셋째는 거울적 사고인데 이는 이 쪽은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고 상대방은 역시 이쪽을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61).

이는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옳은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흑백론적 사고가 갈

등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실제 상황에서는 자신들에게 취하지 못할 행동을 상대방에게는 취하게 된다(Rothbart & Hallmark, 1988).

그리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사업자나 당국)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박한 현실론(Robinson 등, 1995)인데 이는 자신들은 남들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면이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공평한 행위를 많이 하며 다른 이들은 불공평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여긴다(Messick 등, 1985)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 행위와 개인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직책상 나에게 한 행위를 나 자신 개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자아 중심성이 있는데 이것이 갈등 관계에 처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서로 적대시하게 되는 과정의 기저에 놓인 심리 작용이라고 한다(이수원, 1993).

이같이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은 당사자 각각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다.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투입된 노력이 커진 경우에 이를 헛된 것으로

<표> 원자력 관련 조직 및 단체의 이해 구조

기관	역할 및 업무	비고
정부 규제 기관(1)	국민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를 규제	
원자력 사업자(2)	원전을 건설·운영	
하청 업체(3)	계약에 의해 원전 사업자의 업무를 수행	
연구 기관(4)	원자력 관련 연구 수행(사업자측 연구비 및 정부 예산 사용)	
대학교(인력 배출 기관)(5)	인력을 배출하여 1,2,3,4에 공급, 1,2,3,4로부터 수탁 연구 수행	
지역 주민(6)	해당 원전 지역에 거주, 원전 안전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7)	생산 전력을 소비하며 세금으로 규제 기관 예산을 부담. 원자력 안전성의 최종 소비자이며 규제 기관의 고객	
언론(8)	원자력에 대한 취재 및 보도(1,2,3,4,6,9로부터 정보 취득)하여 7에게 공급	타언론사들과 취재 경합 관계
NGO(9)	민간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성 감시 활동 수행	

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타협을 추구하는 데 있다.

왜 역할극을 시도하는가?

그러면 왜 이러한 원자력 분야의 현안 문제, 즉 규제 기관의 대중 신뢰성,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 역할극을 시도해보는 것인가?

우선 역할극은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Moreno로부터 시작한 심리극이 80여 년 동안 이론이 정립되고 그 성과가 입증되어 왔는데 이것이 사회극으로 발전을 해온 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역할극은 원자력 분야에서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대안들과 병행하여 시도해 볼만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로, 복잡한 갈등 구조를 마음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래의 피상적인 교육이나 홍보라는 수단으로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위하여 그 방사성 폐기물의 명칭을 원전 부산물이라고 했다가 또 원전 수거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에 가속기 건설을 끼워주는

만들지 않으려는 매몰 비용(sunk cost) 효과가 더욱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는 결과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 결과의 공정성은 분배 정의의 판단에서 자기 위주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절차의 공정성에서는 사람들은 절차 적용의 일관성·정확성 및 조정의 기회가 있는지를 따진다.

갈등 상황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으로는 공동 목표의 설정, 긴장의 점진적 감소책(GRIT :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중재 및 조정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갈등 구조를 이루는 인지적 오류들 중에서 서로 역할 바꾸기를 할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비양립성의 오류, 투명성 과장의 오류, 거울적 사고, 소박한 현실론, 사회적 자아 중심성 등의 오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

한 분석은 이 분야 전문가의 영역이 될 것이다.

요컨대 역할 바꾸기로 그들의 심정이 되어 실제 연기를 해봄으로써 단순히 생각만을 바꾸어보는 것과는 다른 심리적인 이해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러한 사회극을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 역할 바꾸기 연기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을 일단 중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볼만큼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한다는(소위 zero-sum game) 생각을 벗어나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역할 바꾸기의 목표는 이러한 유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경제적인 보상의 접근 방식이며 이는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지는 못한다(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막연한 불안'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들에게는 그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불안을 막연한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식과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역할극은 시도해 볼 만하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현단계에서 미흡하고 또 그들의 의식을 당장 눈에 띄게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 기관이나 사업자가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사실 규제 기관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원자력 안전 문제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반면 사업자들과는 업무상 접촉이 많으므로 알게 모르게 규제자들은 사업자의 의견 쪽에 경도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자들 및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이나 NGO, 언론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그들의 직무 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언론의 속성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역할극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1. 역할극의 진행

사람의 사고는 여러 인지적인 오류들로 인하여 왜곡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상호간에 깊은 갈등 구조를 이룬다. 역할극에서는 당사자들이 함께 공연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들을 분출시키게 되는데, 극에 몰입하여 함께 연기하면서 마음에 있던 생각들을 마음껏 털어내도록 함으로써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체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말들은 다 하여 감정을 분출시키며, 그리고나서는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역할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또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우선 참여자들이 역할극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본에 의한 전문 사회극 연기자들의 공연을 보여준다. 이 때 참석자들은 공연에서 나타나는 역할 연기자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자신들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집단적인 감정의 고양이 일어난다.

그리고 진행자(director)의 인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관객들 중에서 규제자·지역 주민·사업자들이

연극에 참여하고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 때 발언의 수위는 충분한 카타르시스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적절히 역할 바꾸기를 하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연기를 해본다. 단순히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그의 의식의 심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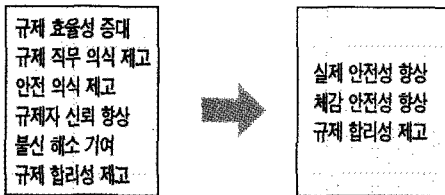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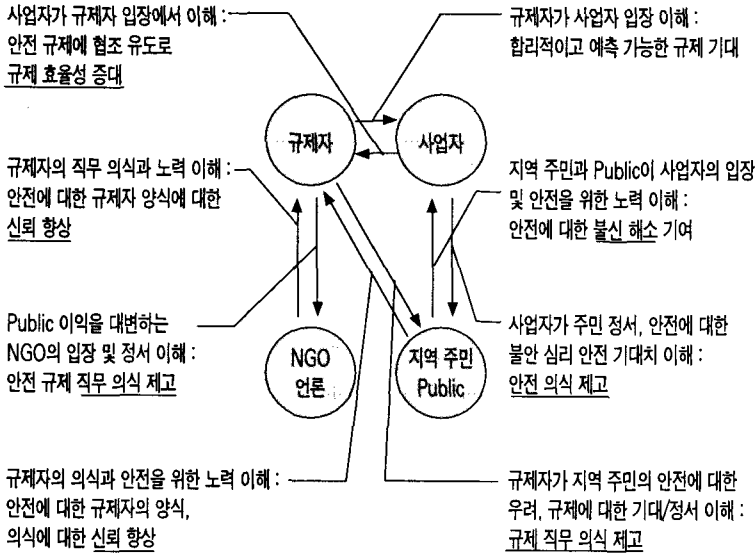
극이 끝난 후 함께 토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며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리면 뒷풀이 한마당을 가지는 것도 사회극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2. 기대 효과

이 역할극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안전 규제를 하는 규제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규제에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규제자가 사업자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규제 업무에 있어서의 윤리성을 고취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각 집단 간의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그림>에 표시하였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자와 사업자가 지역 주민·국민·언론·NGO들의 역할로 연기를 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정서를 이해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 등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역할극의 기대 효과

지역 주민·국민·NGO·언론 기관 등이 규제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되어서 역할 연기를 해보면 이들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결과적으로는 인지 안전성(체감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인 효과로 규제자가 사업자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

그러나 이러한 역할극의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환자들의 심리 치료에 사용하는 역할극이 복잡한 이해 관계

로 얽혀 있고 정치적 함의를 가진 원자력의 문제 해결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위에서 논의한 갈등의 인지 오류상의 문제 등이 이러한 역할 바꾸기 연극의 공연으로 실제 얼마나 해소가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과연 지역 주민들을 역할극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규제 기관이나 사업자는 역할극으로 기대되는 이득이 있으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왕복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참여에 의하여 당장 드러나는 뚜렷한 이득이 없다.

원자력 family에 의해 동원되어 밥이나 한끼 얻어먹고 기껏해야 찬 조출연자로 이용되고 언론에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규제자와 사업자는 소수이므로 역할극의 결과 직무 의식의 제고는 기대가 예상되지만 원전 주민들은 다수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역할극 참여로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 그룹이 경험한 것들이 전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파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규제 기관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들의 관심 속에 역할극을 하는 도중에 사업자나 규제 기관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나 위협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

언론들이 전체를 보도하지 않고 그러한 측면만을 흥미 위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 행사 자체가 언론 보도용 홍보 메뉴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그동안 여러 편의 사이코드라마·사회극 등에 직접 참여해 보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극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이 대외 과시적인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

지 않고 한 바탕 카타르시스의 장을 연출해 낼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원자력 홍보 단체가 아닌 규제 전문 기관이 이런 역할극을 시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만일의 경우 주민 참여가 없으면 주민들의 역은 주민들과 사전 접촉하여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사회극 전문 연기자들이 대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와 규제자 직무 의식 제고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문은 일부 주민들이라도 이런 체험을 한다면 그 인식의 확산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역할극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각 원전별로 지속적으로 역할극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우려인데,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역할극 진행자에 의해 적절히 통제가 가능하며 사실 이러한 우려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해 볼 게 없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작은 소란이나 부작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홍보와 교육(사실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다. 이미 여러 국제 회의에서는 대중들을 교육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원자력 종사자들의 오만한 발상이며 대중들은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으로만 대처하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갈등을 과업상의 문제, 인지상의 문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종사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접근 방식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결 어

원자력 안전의 문제는 곧 인식의 문제이다. 규제자든, 사업자든, 지역 주민이든, 서로의 입장이나 이해와 관계없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그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어떤 일이 기존 여러 방법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의 시행에

는 때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으나 항상 새로운 국면 전환은 리스크를 감내하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지역 주민들을 역할극의 장으로 끌어들이어서 마음에 맺혀있는 생각들을 눈치를 보거나 여과하는 기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고 또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역동적인 카타르시스의 한마당을 연출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우려를 버리고 과감히 시도를 해 본다면, 이 역할극은 현재 벽에 부딪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및 체감 안전성의 향상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부지 문제 등 여러 다른 현안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할극의 결과 가능성이 보이면 이를 지속적으로 각 원전 현장에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역할극으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규제자-지역 주민 간의 역할극도 개최하여 복잡한 갈등 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역할극 전후의 참여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상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점차 사회 심리학자나 사회극 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할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과제화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역할극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와 지원을 기대한다. (choi@kins.re.kr) ☞